

## 300-5-125 신문조서(權榮台 외 33명 치안유지법 위반) 7

## ■ 權榮台 외 33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기록 수록(문서 300-5-119부터 계속)

- 1934년 5월 7일 증거품 발견 보고와 차압 및 압수가 집행되었다. 5월 7일 宋海甲·安浩性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으며, 5월 8일 李鍾禧, 9일 金良仙 등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고, 10일 金三龍·李百萬 등에 대하여 수색과 차압이 집행되었다. 11일 金三龍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다. 같은 날 尹今子·黃大用, 12일 李百萬·安三遠, 13일 閔丙夏 등의 청취서가 작성되었다. 13일 李錫晁·李炳德, 14일 元俊植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진행되었고, 14일 俞鎭熙·李丙驥의 청취서가 작성되었으며, 15일 權赫燮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다. 16일 朴小在의 청취서 작성이 있었고, 동일 金三龍 2회, 李百萬 2회, 李基仁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으며, 片清子の 청취서가 작성되었다.
- 4월 17일 姜允錫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으며, 5월 23일 禹燦·車啓榮·李相春·金秋星·安炳春 등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진행되었다. 4월13일 全順德의 피의자 신문조사와 차압이 있었고, 14일 全順德의 1·2회 피의자 신문조사가 용산경찰서에서 있었다.
- 5월 24일 全順德의 1·2회 피의자 신문조사가 경기도경에서 실시되었으며, 安炳春의 3회 조사도 실시되었다. 25일 安三遠·李丙驥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고, 26일 鄭七星·權五相 2회, 申德均의 피의자 신문조사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